

테마특서

사찰답사 안내서

울긋불긋 물든 산사를 찾아 기도하고, 아니면 계곡이나 묘사체 마루에 앉아 가을의 풍광에 흠뻑 빠져보는 쾌감!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떠날의 시간에 책을 곁들여보면 어떨까. 가을 산사로 답사를 떠날 때 길잡이를 해 줄만한 책을 모았다.

우선 어느 산사로 떠날까 고민하는 독자들을 위해 전국의 대표적 사찰을 소개한 책들을 권해본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서로 전국의 유명사찰 50곳의 역사와 문화재를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명찰>(이호일 외 지음, 한국문화원)을 들 수 있다.

최완수 씨의 사찰기행집 <명찰순례>(전3권, 대원사)는 불교문화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 보는 눈을 열어줄 책이다. <절을 찾아서>(고은 지음, 책세상)는 강원도 동해바닷가 낙산사에서 출발해 경성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경기에 이르는 명찰 61곳을 찾아가는 기행집이다. 이 책의 매력은 사찰이나 산에 대한 정보보다 오히려 시인의 감성이 묻어나는 글맛에 있다.

'사찰과 전설' 또는 '고승과 사찰' 등을 주제로 하여 흥미 있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책도 많다. 불교문화를 전공한 김승호 동국대 강사가 쓴 <절따라 전설 따라>(대원정사)는 잊혀져 가



가을 산사에 가면 사색과 깨달음이...

는 옛절에 얽힌 이야기와 절에 들어선 불상, 전각과 관련된 연가담을 들려준다. <고승과 명찰>(황원갑 지음, 책이있는마을)은 한국불교 1,600년사를 빛낸 고승과 거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그들이 거쳐간 명찰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종교학자 조용원 씨가 13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내놓은 <나는 산으로 간다>(푸른 숲)는 고승들의 깨달음을 조명하는 책이다. 변산 불사의방, 금강산 건봉사 등 전국 21개 사찰과 선승들의 깨달음을 담았다.

호젓한 산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전국의 암자순례기와 명상길을 한데 모은 <길 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정찬주 지음, 해들누리)와 <새벽산사에 가 보세요>(미영순 지음, 시공새)를 권한다.

사찰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한다면, 사찰의 성립과 배경 등 사찰이 지닌 의미를 분석한 교양서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김현준 지음, 효림)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찰 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허근 지음, 돌베개)는 25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을 답사하고, 사찰을 장엄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또 <한국불교기독교지>(정성운 외, 불교시대사)는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36곳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특정 사찰이나 지역별로 사찰을 일별하고자 한다면, 대원사의 '빛깔 있는 책'과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하다. 김중근 기자



'붓다의 대중견성운동' '초기불교 개척사' 김재영 지음

"붓다에 대한 무지 심각한 수준"

"오늘날 불교도의 대부분이 치열한 구도(苦)의식을 상실했다. 동남아시아나 티베트 불교도들은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염원하고, 한국·중국·일본 등 북방 대승권의 불교도들은 거의 현세 이익에 집착해 있다."

오늘날 불교도들의 수행 풍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만인견성'을 주장한 초기불교 개척사 연구서 두 권이 나왔다. 70년대 동덕대학교 불교학과 청보리회를 창립하여 30여 년을 지도법사로 활동했던 김재영(63) 씨가 내놓은 <초기불교 개척사>와 <붓다의 대중견성운동>이 바로 그것. 이 두 권은 그가 18년 동안 '대중견성론(大眾見性論)'을 화두로 포교 현장에서 체력과 여러 사료를 전착해 연구한 노력이다.

지은이는 "오늘날 불교인들을 깨달음과 부처님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다함없는 연민과 헌신, 순교적 전도, 개척정신과 고행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초기불교 견성운동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불교가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단기간에 인도대륙을 정진적으로 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대중견성운동의 성

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인의 평화와 행복의 길'로서 인류역사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보편적 구원의 빛으로서 찬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대중견성운동의 성공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중견성, 대중견성운동은 불교운동의 생명인 동시에 인류평화운동의 희망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8년 연구활동 결실 초기 불교 개척사 통해 만인 행복의 길 제시

깨달음에 대한 오늘날 수행자들의 허위(虛)의식을 신랄하게 비판한 지은이는 가장 시급하게 극복되어야 할 것은 '부처님에 대한 무지'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 등 대승권의 불교도들이 붓다 석가모니를 잘 알지 못하는 정도는 상상(想像)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이나 승가대학의 이수과목에서 초기경전, 빠알리-니까야나 <아함경>이

빠져 있다는 것을 그 한 예로 든다. 부처님을 모르면서 부처님과 법을 논한다는 것. 스승을 알지 못하면서 스승을 뛰어넘겠다는 삼불살사(三不殺殺)의 발상은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불교인들은 대중견성, 만인견성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신비하고 초월적인 깨달음의 환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의 삶의 궤적과 부처님 그리고 초기 대중들이 피땀 흘리며 얻어간 순교적인 개척사를 잘 모르는 것이 지금의 위기상황의 근본요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구경과주역서>를 토대로 한 대중견성 사건 통계표, 초기불교 개척·순교 지도 등이 지은이의 주장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한다.

이 두 권의 책은 초기불전을 통하여 부처님의 삶과 초기 대중들의 개척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대중견성운동의 실상과 견성원리를 규명하는데 있다. 방법론은 초기개척사와 견성사상 조망과 원형복원이다. 그러나 지은이의 궁극적 초점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우리를 자신의 삶과 우리 시대의 인류견성운동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a.com

동서미술 소가져 한국미술 원형찾기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미술' 김경자 지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양화 기법을 중심으로 그림을 배운다. 물론 한국화도 배운다. 하지만 서양화에 비하면 그 비중은 매우 작다.

신간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 미술>(다르세상)은 세계미술사에 주목을 끌었던 서양의 작품들과 우리 미술을 비교하면 서 우리 미술의 원형을 찾는다.

지은이 김경자(한양대 전통종교미술원장) 교수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의 첫 번째 예로 단청을 든다. 그 이유는 어느 회화도 감히 누를 수 없는 회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이는 수평

과 수직의 선을 그어 세계미술사에 '차가운 추상'이라는 획을 그은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대비한다. 그리고 지은이는 말한다. 몬드리안이 과학문명의 질서를 향한 인간의 고뇌를 그렸다면, 단청은 하늘의 질서를 향한 인간의 고뇌를 그렸다고.

고흐의 '자화상'과 김명국 씨의 '달마도'에 대한 분석도 살펴보자. 지은이는 '자화상'의 눈동자처럼 '달마도'의 눈동자로 단청을 든다. 그 이유는 어느 회화도 감히 누를 수 없는 회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이는 수평



것 같은 무서운 속도의 시선이 담겨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까지 초월하는 곳에 영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니 그렇게 한 우주를 열어젖히는 것이 김명국 씨의 '달마도'요, 달마의 눈동자란 것이다.

책은 이 외에도 불교의 수미단과 마티스의 파란 누드 IV, 고려의 수월관음도와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 불교의 감로탕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지옥 등 21가지 주제로 나눠 한국 미술의 미학을 살핀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현재의 삶속에 있는 행복

지금 여기에 살아가 손민규 옮김

<지금 여기에 살아가>(손민규 옮김, 지혜의 나무)는 삶의 본질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질문과 바람에 대한 오소 라즈니쉬의 대답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라즈니쉬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해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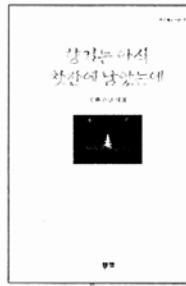
그 실천론은 바로 언제나 내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 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과거의 관습과 미래에 대한 이상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존재 자체의 행복과 즐거움,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깨달음이라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금'과 '여기'란 바로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다.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향기는 아직...'

수완 스님 지음



찾잔에 담긴 깨달음 향기

성우 스님과 수완 스님이 나란히 시집을 내놓았다. <차향기>(다도)와 <향기는 아직> 찾잔에 담았는데(부크)가 바로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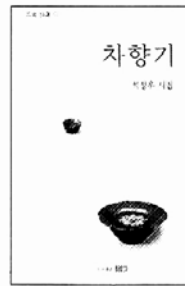
팔공산 파계사 성우(불교텔레비전 회장) 스님이 펴낸 <차향기>(다도)는 스님이 차 생활에서 얻은 화두를 선사상과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 오랫동안 차를 즐겼던 스님은 '작설차'의 58편의 시에서 차의 향기와 찾잔, 찾자리 등 차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 속에 투

영되고 있는지를 간명한 언어로 표현했다. 시 중간 중간에 실린 도어가 신현철 씨의 도자기 작품 또한 시어의 향기를 짙게 해준다. 값 6천원.

<향기는 아직> 찾잔에 담았는데)는 현대불교문학회장과 계간지 <불교문예>편집인인 수완 스님의 두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편들은 구도자로서의 일상의 편린들과 실크로드를 따라 떠난 여행의 길목 그리고 유년시절의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있다. 값 6천5백원.

'차향기'

성우 스님 지음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적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uddhist books.

도서 안내: (02)737-0695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9·10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특집

종교 민영교도소 도입과 불교계의 방안

2003년 종교 민영교도소 개소에 앞서 불교계의 타 종교계의 추진현황 및 외국의 민영 교정시설의 운영사례와 효과를 집중 조명한다

특별기고 / 2001 중국기행 ①

장강 40여 일 동안 광활한 대륙의 여정이 한장각 넘치게 펼쳐지는 일지 스님의 중국 여행기 제1화 - 실크로드의 관문, 장안(長安)에서 현장과 의정을 만나다

해외불교 법문 - 일본 釋佛교를 미국에 포교한 스즈키 순류 선사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수행

연암 박지원의 불교이야기

『선굴당기(仙窟堂記)』- 사람의 이름은 배미의 허물이나 끝의 꺾짐에 지나지 않는다

최보 특집 - 밀교의식이 강한 일본의 불교 의식구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성으로 교류하여 토론을 도모하는 정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옛사람이 그리워질 때...

성남주의 문화재소실 - 경주 분황사 '약사불과 모전석탑' 풍일의 승천(昇天)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마지막 회) - 보시/신행 춘희 고자화 기사, 불국생 김미희 보살

▶ 그동안 인제된 7개 분야 총 26명의 불자들

- 학술 - 김영식, 김영수 황의문, 박봉석
· 재가불교운동 - 장경호, 조인라, 윤주영, 여동명
· 인문/술판 - 정성문, 이한성, 이희익
· 문화/예술 - 고유성, 한영숙, 서창업
· 문학 - 김달진, 조지훈, 오상순, 양진희
· 사회운동 - 유대희, 김기주, 김성숙, 진진한
· 보시/신행 - 백선생, 김부천, 고자화, 김미희

각별한 불교문화화 전화: (02) 719-2606, 팩스: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禪文化

9월 2001년 14호



정기구독안내

1년(12호) 42,000원

정기구독은 은행계좌인이나 지로번호로 구독료를 입금하시고 전취주시면 됩니다.

구독문의: 733-8076 E-mail: eildara@hanmail.net

선문화 기행 · 중국 하북성 조현 백림선사

생활 선미(生活禪味) 피어났다

화제의 논문 돈오선(頓悟禪) 연구 [2]

화제의 책 송산행원선사전서 『세계일화』 21세기 선(禪)의 종주국(宗主國) 선언

7일 안에 깨달아라!

제가신자에게도 깨달음의 길이 있는가. 이 시리즈를 통해 7일안에 성불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 나를 찾는 깨달음의 길, 3시간만의 깨달음의 체험, 해안산사의 공부법인 '칠일안에 깨쳐라'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다.

권두범어 등롱(燈籠)과 노주(露柱) 진제

마경대 평상심(平常心)으로 살아가 동광

선과 정신문화 이원홍

인간화를 성취하기 위한 정신세계로

논쟁과 사상 문영애

주자의 선불교 비판

미리보는 禪文化10월호

한국선불교의 25시

1천년간 이어온 한국선에 대한 탐구 그 진실을 밝힌다.



선과 차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 ① · 사천성 성도시 대성자사 거리의 다관 꽃피운 무상선사 최석한 선인들의 茶話 · 이규보의 차시(茶詩)

名茶의 전설 · 대홍포차(大紅袍茶) 천병식 자순(紫筍) 찻잎의 붉은 전설

선과 문화

중국 선의 사상 조국경

중국 강서성 불교의 어제와 오늘

구산선문을 가다 동리산 태안사

중국 선 동류(東流)의 현장

구산선문의 공간미학 ① 홍광표

대자연의 순리에 이루어진 불국(佛國)

『입제록(入齋錄)』 노트를 읽고 신명훈

강정중 시인에게 드립니다